

기고

남지영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함께 지킨 70년, 평화의 한반도

작년 여름휴가철까지만 해도 국내외 해외로 피서를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에서 피서를 즐기는 것마저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발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엄청났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진 이 질병의 적수가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던 지난 5월, 국가보훈처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5월 6일부터 6월 중순까지 유엔 참전국인 22개국의 유엔참전용사에게 100만개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한국은 70년 전 우릴 잊지 않았다”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들. 이들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신들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우린 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라 선언하고 “침략행위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 철수”를 요구한다.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까지도 북한군이 계속 남침을 강행하자, 유엔안보리는 이날 “유엔 회원국의 북한군 격퇴 참여”를 결정한다.

곧이어 유엔은 7월 7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미국의 맥아더 원수를 임명하여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함으로써 22개국이 한반도에

참전하게 된다.

유엔군 195만여 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참전하였다. 생각해 보면, 생활환경도 다르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한 머나먼 이국땅에서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현재 해외로 파병된 국군장병들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전투의 위협 속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유엔군이 참전했던 70년 전 한반도는 더욱더 처절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승패를 떠나서 모든 것에 참혹한 상흔을 남겼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들을 지금까

지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로 제정되어, 2013년부터 매년 정부기념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정부대표, 6.25 참전 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유엔군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22개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행사로 개최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인원은 축소되었으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오늘날 전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룬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전쟁 이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당당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이제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참전용사들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70년 전 함께 싸운 우리가 다시 한 번 세계의 평화에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社 說

### 2차 공공기관 이전, 할테면 제대로 하라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시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보회의 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식 언급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관이 어디로 내려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구는 작년 말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기 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값은 내려갈 줄 모르고 외려 오르는 이유도 수도권 과밀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당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빚어지는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

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자리를 옮겼다. 세종시 19개 기관 종사자까지 합치면 이전 기관 종사자 수는 5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추가 이전의 당위성에도 그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뒷보다 내년엔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옮겨 갈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잡음이 일고 정치 쟁점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달리 헌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강력한 실행 의지 아래 합리적 절차와 예산 뒷받침되면 추진하기 쉽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흐지부지 말로만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값 상승 금은방 업주 자위 방법역량 강화를

최근 코로나19 여파 및 저금리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금값 또한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금이 금값이라고 한다.

문제는 금값이 오르면서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죄가 요즘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최근 인천 등지에서 강도가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업주를 위협한 후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강취해 달아나는 금은방 강도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은방 업주들의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발생한 금은방 털이 사건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검거했다고 하니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대담한 범행수법에 대비한 금은방 업주의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 방법체계 재정비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은 매장 내 시설중 강화유리로 교체하거나 고가의 귀금속 및 현금에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는가 하면 진열장 캐비닛용 보호필름 부착을 하는 한편 무인경비 보안업체와의 계약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 출입문이나 진열장 잠금장치 이상유무, CCTV정상작동 여부 수시 점검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물론 경찰에서도 전국 귀금속점 강철도 예방을 위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취약시간대 금은방 주변 집중 순찰 및 검문검색 실시 등 특별방범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만약의 범죄 발생시 형사,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집중투입하여 조기

해결에 주력하고 있고 여기에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도록 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기는 하지만 금은방 업주 또한 가급적 여성 1인 매장내 근무 자제 및 범범시설 보완 등 자위방법역량 강화에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업소 주변에서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이나 오토바이, 차량 등 의심상황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경찰과 금은방 업주의 범외범에 대한 다각적 노력으로 금은방을 범죄타겟으로 하는 강철도 범행의지가 차단되는 효과가 나오길 바란다.

김덕형/정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대표전화 (062) 229-60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기사제보 (062) 222-2580 팩스 (062) 222-5547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